***미주와 중남미 한인 디아스포라의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선교적 역활***

라틴 아메리카의 한인 이민의 역사가 이제 올 해로 117년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한반도를 떠나 이 먼 중남미까지 이민을 왔던 것일까요? 물론 어려웠던 조국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왔던 것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였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더 큰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열된 이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부족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인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서로 하나(reconciliation)가 되고 또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섬김과 아름다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지인 중미의 상황, (특별히 과테,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어떻게 보면, 20세기 후반 아픈 역사의 상처를 입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힘든 경제적 상황들을 겪었으나 동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들입니다. 실로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90년이상의 오래된 선교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교단들은 5% 이상 성장을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두 40%를 넘는 역사상 가장 빠른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을 경험한 나라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됬으며, 또한 중남미 더 큰 인구 또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도전하며 하나님의 선교, 특별히 이슬람권의 사역에 헌신하며 순종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1970년대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 개신교가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말해 그들의 놀라운 교회 성장과 현재 상태의 이야기이며 두번째는 우리 중남미 한인 디아스포라들 어떻게 성장했는지와 도전에 관한 이야기들이며 세번째로는 오늘날 중남미와 북미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시대적 사명과 도전들에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I. 첫번째ㅡ**

1. **1970년대 이후 있었던, 특별히 중미의 사회적 상황들과 교회의 관계와 오늘날의 선교 도전들**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메스티조(Mestizo)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스티조는 백인들과 인디언들의 결합가운데 태어난 혼혈을 이야기 하는데, 신대륙을 가족단위로 이주해 정착한 미국과 카나다 등 북미 이민자들과는 달리,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스페인 정복자들은 싱글로 신대륙을 찾아갔고, 또한 그곳서 결혼할 스페인 여성이 없자 현지 원주민 인디언 여성들을 자신들의 성욕을 채울수 있는 노예, 또는 첩과 같이 착취하면서 오늘 날 알려진 Mestizo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멕시코 출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Octavio Paz**는 오늘날까지 멕시코 민족들에게는 열등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메스티조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Mestizo화는 분명히 인간의 죄악성에 기인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메스티조화에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16세기에 라틴 아메리카를 복음화 하기 위해 신대륙을 정령한 스페인인들은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착취하며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그 당시 노예제도 보다 못한 선교 정책인 엔코미엔다 (Encomienda)라는 제도로 독특한 인종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내었고, 이 구조에서는 스페인 출신 (Peninsulares)과 신대륙에서 태어난 스페인들 (Criollos)들, 즉 유럽인들은 이 피라미드 구조의 제일 꼭대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밑 단계에선 스페인 출신과 인디언들의 혼혈족인 메스티조 (과테에서는 당시 경멸의 단어였던Ladino 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메스티조 밑에는 인디언들의 후손, 그리고 소수의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 후손이였던 흑인들, 이들은 인디언들과 같은 낮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와 분열은 오늘 날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구조이기도 합니다.안따깝게도 이 인위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오늘 날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의 분열을 가져 왔는데 최근까지 과테말라의 경우에는 (과테말라가 어쩌면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의 분열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20세가 후반까지 이러한 구조가운데 약 8%의 상위 백인들이 과테말라의 자원과 부의 80%를 소유하며 장악하고 있었고 밑 바닥에 사는 80%의 메스티조 (라디노들) 마야 인디원들은 국가 자원의 불과 20%를 가지고 아귀다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아주 불공정한 정치, 경제 시스템과 인종적 분열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물론 남미에서 비슷한 나라는 볼리비아, 그리고 페루와 에쿠아도르가 비슷했으며 물론 인디언들의 숫자가 적어 이런 상황은 아니였지만 같은 스페인의 식민지 언어 문화와 정치의 유산을 받았던 중남미 국가들은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Mario Varga Llosa,  **Ciro Alegria El Mundo es Ancho y Ajeno**

1. **현재 과테말라와 중미(Central America)의 선교현황**

**1. 해방신학: (**제 2 바티칸 공의회와 메델린 중남미 주교회) Aggiornamiento -Up dating.  
사실 이러한 극심한, 몇 세기를 이어온 분열을 겪으며 살아왔던 중미인 (Central American) 들의 삶은, 1959년도 쿠바혁명과 1979년 있었던 니카라과 혁명이후, 특별히 해방신학이 교회와 라틴 아메리카에가져온 독특한 역활과 변화가 컸었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해방신학을 잠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너무나 착취와 탄압이 컸던 라틴 아메리카에서 교회는 가장 가난한 자와 연대감 (La Solidaridad con los pobres)과 결속감을 갖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극심한 빈부 차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노예처럼 착취하는 경제, 폭력, 인종차별의 깊은 구조 속 차별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폭력을 사용하면서도 바꾸어야 한다는 혁명적인 사상과 입장도 이야기 했었는데, 실지 니카라과 혁명에는 혁명군에 합류한 해방신학자들이 있었고 (Hernesto Cardenal 및 Gaspar Laviana), 이들은 정부군의 많은 박해도, (특별히 살해도) 당했었습니다.

**2.. 오순절 교회:**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나라가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과테말라 였었는데 그 중 과테말라가 가장 밀접한 사례연구와 같은 나라였고 Huehuetenango 및 San Marcos 지역들 산간 지방에서 이러한 해방신학자들과 게릴라들과 접촉했었던 마야인디언들은, 심지어 간단한 만남을 가졌던 인디언들도 엄청 많이 살해당했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약 20,000명이 넘는 인디언들이 군인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물론 36년 동안의 내전기에는 20만 명이 살해를 당했고) 수많은 인디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생존을 위해 도시로 탈출해, 빈민촌의 오순절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었습니다. 많은 순복음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 역시 마야 인디언들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이였는데, 산간 마을에서 도망나온 인디언들은 이 빈민촌의 오순절 교회에서 삶의 변화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실질적인 공동체 의식을 주었고, 가난한 자들은 처음으로 그들에게 맞는 영적 공동체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중남미의 가난한 자들을 찾았지만 그러나 중남미의 가난한 자들은 순복음 교회를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방신학이 가난한 자들의 법률적 문제나 사상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으려 했지만 (마을 들어가는 다리를 건축해 주거나),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가난한 과테말라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순복음 교회나 또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술 중독, 마약 중독, 또는 부인외에 다른 여자를 찾던 버릇등을 말씀과 기도가운데 고침을 받고 가정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되 순복음 교회를 더 필요하게 생각했다는 면에서, 위 농담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는 그들의 모체적인 공동체가 되었고, 교육의 상관없이 “형제” 또는 “자매” 라는 (Hermano, hermana) 라는 존중이 담긴 호칭을 들었었고, 또한 집사 장로가 되어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또 그들 중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는 불안전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수많은 오순절 교인들은 과테말라와 또한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복음주의 교회의 경이로운 복음주의 교회들의 성장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당시 만연했던 불평등과 빈곤, 부패, 폭력에 따른 희망의 상실로 고생하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 다양한 자연재해들, 즉 1976년 과테말라 대지진과 1972년도 니카라과의 지진, 그리고 다양한 허리케인들을 비롯한 자연재해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와 기독교 재해센터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지원, 그리고 과테말라와 중미의 복음주의 교회들의 빈민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 그리고 구제의 사역들이 많은 중미인들을 카톨릭에서 복음주의로 돌아서게 했으며, ( 활기찬 복음선포와 성가 음악으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개신교회로 돌아오게 한 원인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중미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그리고니카라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교회성장을 경험했으며 또 다른 라틴 아메리카 개신교 역시 중미 같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갔습니다. )

**통전적 신학:**

그러한 상황가운데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에 관해 복음 전파 보다 사회적 책임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했던 해방신학과 또 사회적 책임보다는 복음 전파만 신경썼던 오순절 교회 가운데, 로잔운동의 리더였던 John Stott 과 함께 중남미의 신학자로 사역하였다 최근에 돌아가신 Rene Padilla 및 Samuel Escobar 그리고 Orlando Costa를 통한 Mission de Integral (한국에서는 장신대에서 이 복음을 통전적, 또는 통합적으로 번역하며 한국 교회에 소개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은 마치 비행기가 한쪽 날개만 있어서는 안되고 이 두가지 날개, 즉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이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한 어떻게 보면 좌익 그룹인 해방신학, 또 반대쪽으로 복음 전파 만을 강조하던 오순절 (순복음)과 보수적인 교회들, 어떻게 보면 우익 그룹 양쪽에서 그 두가지, 즉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파가 다 필요한데 무엇보다 사회의 현실, Context를 Text인 성경보다 더 강조하는 해방신학이 아닌, 성경, 즉 Context가 사회의 현실과 상황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성경적으로는 올바른 균형이 잡힌 이 신학 방향은 전체 어려움이 많은 라틴아메리카 개신교, 복음주의 교계에 어쩌면 공부를 많이 하고 올바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소수의 균형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번영신학**

그러나 개신교를 믿으면 복이 들어오고 성공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보장받는 다는 번영신학 (Teology of Prosperity) 이란 기복적 측면은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달콤한 복음(?)이였고 매우 효과적인 교세 확장 방법이였었지만, 그러나 사회에 영향력은 생각을 못했고. 또 탈역사적인 관점으로 교회가 부정과 부패, 폭력, 가난 등의 삶, 그리고 불의하고 부패한 삶갸운데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를 못하였습니다.

**지금 방향:**

한국 개신교회가 6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급속히 성장하다가 80년 대 후반 부터는 성장 정체 현상을 겪었던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의 복음주의 교회 역시 20-30년 동안의 진정한 부흥과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었지만, 2000년 대가 되면서 현재 성장 정체 현상을 겪고 있으며, 소비주의 (Consumerism)와 명목상(nominalism) 가운데 성장통 또는 방향감각 상실증에 걸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또 올바른 말씀 훈련이 부족하고 또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인식을 아직 갖지 못하며 교회들끼리도 분열이 되 있습니다. 또한 이단 (Mormon 교단 최근에는 IVF 이단단체 (박옥수 목사)

**II. 두번째 한국 디아스포라의 역사.**

라틴 아메리카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의 물결은 크게 5개의 시기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물결은 1905 년에 제물포항 (현재의 인천) 을 출발 멕시코 유카탄으로 떠난 1,033 명의 한국인을 포함하며. 이 들 중 288 명은 1921년 쿠바로 재이주합니다. 2. 두 번째 이민 물결에는 1950년대 한국전쟁중 전쟁포로로 석방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갔던 57 명의 한국인 포로가 포함되어있고. 3. 세 번째 물결은 1960 년대 초 한국 정부에 의해 계획된 농업 이민으로 1960 년대에 들어온 한인 이민자들이며. 4. 네 번째 물결은 1970년대 파라과이로 먼저 이주해 소위 밴데 로빠로 시작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재이주 의류 산업에서 종사하게 된 한인 이민자들이며. 5. 마지막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라틴아메리카 한인 디아스포라의 다섯번 개 물결은 1988 년서울 올림픽 이후 진행된 , 지금까지 4개의 이민의 물결과는 다른 Post 1988 올림픽 이민, 즉 새로운 이민의 물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 한인이민 100 년사”의 저자인 이자경은 이 시절 멕시코 유카탄에 남게 된 한인 이민자들의 종교에 관해 서술 하면서, 그들의 종교생활이 어떻게 노예와 같이 힘들었던 삶을 견디어 낼 힘을 주었는지 증언합니다. 이자경에 따르면, 제물포항을 출발했던 일포드 (Ilford)상선 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한인 이민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religious identity) 처음에는 불교 또는 무신론자로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새 삶의 터전을 잡게 된 한인이민자들은 서서히 그들이 처음에 밝혔었던 종교적 정체성, 즉 그들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불교를 포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개신교 신앙은 그들이 직면했던, 부당하고, 가혹했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을 신앙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먼 이국 땅, 유카탄의 애네껜 농장에서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삶의 도전들, 문화충격, 외로움, 인종차별, 경제적 고통들을 견뎌낼 수 있는 큰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신앙은 초창기 한인 이민자들의 정신적 닺 (spiritual anchor)이 되었고, 그들의 개인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하나 되게하는 정신적 지주 역활을 감당 하였습니다.

교회는 초창기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과 또 쿠바로 이주해 간 쿠바 한인 이민자들에게, 그리고 반공 포로자들과 또 농사를 지으러 갔던 자들과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없어 상파울로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나 또는 아순시온가서 옷 장사를 하던 사람들에게 이민 생활의 중심 역활이 되었고, 또한 낯선 문화 , 언어, 힘들고 불투명한 이민의 두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이민생활을 헤처나갈 수 있는 의미와 용기를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민자들은 그들의 기쁨, 두려움, 희망, 좌절감을 나누었고, 신앙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교회는 60년대 한인 농업 이민자들에게 진정한 소속감과 sense of community (공동체 의식)을 부여했습니다. (브라질에 정착한 55명의 반공포로들 중 3 명은 그들의 삶을 전임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여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였고 높은 수준의 현지 문화와 언어를 습득했던 이들은 브라질의 다양한 문화권 내 사람들에 관해 깊은 이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서로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번째 라틴아메리카 한인 디아스포라의 물결 속에 (1970-80년대) 성장하게 된 이민교회가 과거의 중남미 한인 이민교회들과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점들 중 하나는 이 시기에 개척되고 성장하게 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처음으로 스스로의 생존과 성장에만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묻기 시작했다는 점이였습니다. 즉 남미의 한인 교회들이 단지 한인 이민자들을 목양하는데에만 그 존재의 목적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민족적 경계 밖에서 그 역활을 인식하게 됬다는 것인데, 중남미 한인 이민교회 역사상 처름으로 그들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아니 중남미 대륙에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이 대륙에서 감당해야할 몫과 역활을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였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한인 이민교회가 감당했던 사역들은 옷과 음식들을 모아 가난한 이웃에게 기부하거나 일부 현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지역 목회자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에 국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중남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만이 아닌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05년 멕시코 유카탄에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된 라틴 아메리카 한인 이민교회 역사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 대륙에 보내셨으며 이 대륙의 복음화에 우리가 맡아야할 역활은 과연 무엇인지, 한인 이민교회들의 선교적 존재와 의미를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기에 남미 교회들의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러 왔던 북미 한인 디아스포라교회의 여러 목회자들 및 부흥사들 중 특별히 박희민, 김의환, 김의환, 고원용, 임동선, 김동명, 김남수 목사, 또한 안이숙 사모 같은 이들이 전했던 메세지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이 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 한인이민이 중남미 척박한 땅에 보냄받은 것이 바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희망의 메세지는 매일 매일 힘든 이민의 삶을 살면서 희망없이 살아가던 남미 이민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도전을 주었고 이 중의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다양한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시기인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정착하게 된 중남미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들을 따라 중남미에 이민와 현지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 1.5세들이 이 시기부터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남미 한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와 선교계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와 스페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1.5세 새로운 세대의 사역자들이 바로 우리 라틴아메리카 한인 이민교회들이 현지 교회들을 섬기는데 크나큰 중요한 자산임을 깨닫게 되는데 실로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이중 문화권에 살아가던,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지녔으며 두가지 문화의 렌즈로 현실을 직시하던 젊은이들은 두가지 이질적인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활, 또는 화해자의 역활을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최적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현재 중남미에서 사역하고 있는 중남미 1.5 디아스포라 사역자들**  
아르헨티나의 박성흠 선교사- 미션 퍼스펙티브 사역

이준성 목사 Seminario de todas las Naciones 와 라틴 아메리카인들을 파송하는 선교 선터 사역

나호철 목사- 중앙/ 벧엘교회 그리고 Gordon Conwell 신학교를 통해 아르헨티나 신학생을 키우는 사역

박지웅 목사- 브리질의 많은 1.5세 2세들을 섬기고 선교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하심

김용철 김용환, 아마존에서 수많은 교회 개척을 하는 사역자.

이경승 선교사 브라질에서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

최남용 선교사 SETECA 신학교 사역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랐지만 미국 상황에서 미국인들과 또 중남미 교회를 섬기는 1.5 사역자들**

양정훈 목사- 현재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히스페닉 사역 및 또한 그들의 고향에까지 진행되는 선교 사역

박성현 교수- 보스톤의 Gordon-Conwell 신학교 사역 브라질 사역자들

Jinny Kang 교수- 텍사스 UT에서 언어를 가르치며 YWAM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슴.

**III. 오늘날 중남미와 북미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시대적 사명과 도전들**

21세기 들어서 오늘날 선교적으로 디아스포라 선교학이 중요 핵심적인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출생한 지역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적인 사역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한 선교적 틀”로 정의됨을 인정한다.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서울 선언 2009년 11월 11-14) 디아스포라 (단수)는 고향을 터나 이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고 복수의 의미로는 고향을 떠나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통칭하려 가르키는 말이다. 이민연구와 선교헉적인 연구의 통홥은 선교의 새로운 전략인 실제적인 “디아스포라 선교학”으로 귀결된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디아스포라를 통해, 디아스포라에 의해 열방을 사역할 수있는 (하나님의 의해) 의도된 전략적인 방법인 것이다.

1.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민 1세의 어려움 끝에 하나님께 나온 1세 크리스천들과 또한, 또한 문화적 언어, 정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형태와 방법으로 선교에 가장 잘 준비시켜주신 1.5세와 2세들을 창의적으로 접근해 이런 선교적,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함께 동역해야 함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중남미 1.5세 선교사들은 라틴 아메리카 한인 디아스포라 목사와 선교사의 새로운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5세 선교사들은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 지역의 복음주의 교회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 또는 동역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2. **기독교회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Kairos moment) 붙잡는데 실퍠한 기독교단과 단체들은, 특별히 우리 라틴 아메리카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들과 선교회, 그리고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사역단체들은 21세기의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중대한 발전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큰 기회를 놓칠 것이다. 서부 (서구) 에서 나머지 세계로(제 3세계) 보내는 선교의 전통적 방식에서 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 그들의 조국을 떠난 이들이 다시 선교사로 돌아올 가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다리” (Bridge of God)의 역활을 실천해야 함.**오늘날 디아스포라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글로벌화, 도시화, 노동력의 지리적 이동과 이민 (동쪽이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과 기독교의 중력(북쪽에서 남쪽으로) 같은 흐림에 의해 역사적으로 전례없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21세기 기독교 선교를 사회문화적인 변화 (글로벌화, 도시화, 지리적 이동)에 따라 디아스포라를 향한,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대 위임령을 이룩하기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얼마자 복음적인 디아스포라와 현지인들에게 좋은 기회인가!우리는 “하나님의 다리”로서의 활발한 디아스포라 전력을 포용하기 위해 전통적인 관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 (로잔 디아스포라)
4. **이 중남미에서 디아스포라 선교는 혼자(lone ranger)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함께 동역(As community of Jesus’ people must work together) 해야 함.**
5. **특별히 중남미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회의 독보적인 단체였던 Mila 선교회의 예, (오은규 선교사)**
6. **미국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중남미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이해와 협력**
7. **또한 이 중남미에서 디아스포라 선교회는 한국 사람만의 사역이 아닌 지금 막 일어나 선교의 귀한 일을 감당하려는 중남미 선교단체들, 그리고 각 피선교지의 교회들과 교단, 단체들과 함께 동역을 해야 함. (COMIBAM, 과 신학교들, 또한 Missional Church, BAM, 도시선교, 및 교육과 의료사역, 또한 Muslim 선교 단체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들이 남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립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여야 함.**
8.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The Peace of Christ)들을 함께 경험한 디아스포라의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에서 기쁨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공유해야 함**. 한국교회와 미국, 어쩌면 중남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잊지 말 것. 우리의 자랑이 아닌, 우리의 순순한 은혜의 경험을 겸손하고 솔직하게 나누어야 함.

멕시코 산 헤로니미토의 Cupertino Mayo

브라질에서 1.5세로 선교하다가 암으로 먼저 주님의 나라에 간 안승열 선교사.